금주의 법구-〈법구경〉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거둬 성냄을 버려라.
깨달음엔 인욕이 으뜸이니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5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3호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직선제'도 논의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21일 임시회서 특위 구성 결의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은 조계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다. 염화미소법으로 대표되는 '추첨제'와 함께 '직선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6월 21일 개최한 제206차 임시회에서 직선제를 논의하기 위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무원장 선출 관련 종헌 개정안과 종법 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오후 2시 속개한 회의부터 비공개로 전환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결과보고 △종헌개정안(총무원장선출 관련) △총무원장선출에관한법 제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총무원장 선출제도 논의 결과 보고에서는 종회의원 스님들의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지역대중공사 결과로 보고된 통계자료는 부적절한 표

특위 위원장엔 태관 스님
위원은 9~11명 위촉될 듯
특위 활동후 法 성안되면
추첨제와 함께 논의 예상
'염화미소법'은 차기 이월

본과 투표자의 중복참석 문제 등으로 정확하게 설계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중공사의 가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제대로 설계 되지 않는 통계로 인해 심각한 여론 왜곡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중공사추진위는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통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6월 22일 공의를 수용한데 대한 환영의 뜻을 담은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중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부대중의 공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무원장 선출 직선제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기구로서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결의함을 환영한다"면서 "특위를 통해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종회가 대중공사를 통해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지만 종단에 대한 애정으로 대중공사에 참여한 종도들의 마음과 지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중공사 결과 보고 후 중앙종회는 의견 조율을 위해 휴회하고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장에 태관 스님(호법분과위원장)이 선임됐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후보군 선출 후 추첨하는 '총무원장선출에관한법'은 직선제 선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이 같은 중앙종회의 결정에 따라 대중의 이목은 새롭게 구성된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에 쏠리게 됐다. 위원 구성과 위원회 활동기간, 예산 규모 등은 의장단에게 위임한 상황이다. 현재 위원은 9~11명 선으로 구성되며, 종회의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까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위 활동을 통해 직선제 법안이 성안될 경우, 차기 종회에서 추첨제와 직선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조항 변경) △종법제개정안(대각회특별교구법제정안, 지방종정법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후보자 복수추천 동의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인 종헌 제35조를 개정하는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조계종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과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등은 서면으로 대체됐다.

또한,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로 주경 스님과 원정 스님을 복수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례위원회가 제출한 종단 표준 의례의식 동의안도 가결했다. 통과된 의례의식문은 우리말 행선축원, 신중예경 등이며, 총무원장 공포로 일선 사찰에 보급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주교 부제들, 참선에 들다

6월 21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전국 15개 교구와 수도회 부제 140여 명이 눈을 감고 고요히 참선에 들었다. 부제들은 주교회의가 6월 20~22일 개최한 '2016 가톨릭 부제들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일환으로 조계사를 방문,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의 법문을 듣고 명상에 들며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등불과 감로수 같은 사제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제39대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선출

20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학교법인 운영에 최선"

6월 21일부터 임기 시작
'이사진 사퇴' 마무리 수순



조계종 군종교구장과 호계원장을 역임한 자광 스님(반야선원 주지, 사진)이 제39대 동국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6월 20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개최한 304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 안건을 다루고 만장일치로 자광 스님을 선출했다. 앞서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은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자광 스님은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사미계를 수지하고, 화엄사 · 해인사 · 건봉사 · 상원사 등에서 수행했다. 1963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동국대 불교대학을 종비생 1기로 졸업했다.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해 군승단장과 국방부 군종실장을 역임하는 등 군포교 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다. 1995년 군승 대령으로 예편하고 종단 복귀 이후에도 2005년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하며 군포교 진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신임 이사장 자광 스님은 "조계종 종비생 1기 출신으로 평소 애정이 많았던 동국대 이사장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인 이사와 산하 교육기관 교직원과 함께 법인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광 스님의 임기는 6월 21일부로 바로 시작되며, 법인 사무국과 함께 업무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기는 2019년 7월 20일까지다.

신임 이사장이 선출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이뤄진 '이사진 전원 사퇴'에 대한 사안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인 관계자는 "성타 스님도 당신의 거취를 1~2개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8월 안으로는 이사진 사퇴 사안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3월 20일자로 임기 만료된 이연택 이사의 후임으로 추천된 문병호, 이은기 씨에 대해 총동창회의 의견 조율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감사 선출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추천 후보가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법인으로 접수돼야 해서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다.

또한, △서울캠퍼스 이행 보증보험 가입 승인 △수익용기본재산 전세권 설정 변경승인 △경주병원 노인공공진료센터 사업 승인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신성민 기자**

韓日불교 지도자들 청소년 교류 적극 협의

37차 한일불교교류회의 회향

지난해 11월 화성 용주사서 청소년 문화교류에 대한 뜻을 모은 한일불교 지도자들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류사업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한일불교)와 일한불교교류협회(회장 후지타 류조, 이하 일한불교)는 6월 15~17일 일본 닛코와 도쿄 일원에서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회의 평간사 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교류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사진 아래〉

한일불교 사무총장 향운 스님과 일한불교 사무총장 와타나베 신고 스님은 17일 일본 진언종 대본산 도쿄 가와사키 헤켄지에서 열린 본대회서 이 같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먼저 양측은 선언문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쿠마모토 · 오이타현의 대지진 피해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지난 제36차 용주사대회에서 공동선언한 청소년 교류사업 실천을 위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요식서 일한불교 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양국 불교도가 한 자리에 모여 성대한 의식을 봉행하게 돼 경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교신앙의 다양성, 특히 포교교화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우의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불교 회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교류를 거듭할수록 의제 선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국이 지혜를 모으기 위한 만남은 선대의 뜻을 수승하게 이어받아 더 나은 불교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증명일 것"이라며 "이번 대회 주제인 '불교신앙의 다양성'은 시대를 읽어가는 지혜로운 대안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의 대회가 후대에 유산으로 회향될 수 있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나무아미타불'에 담긴 놀라운 비밀!



염불하여 왕생하고, 왕생하여 성불하세
순수한 정토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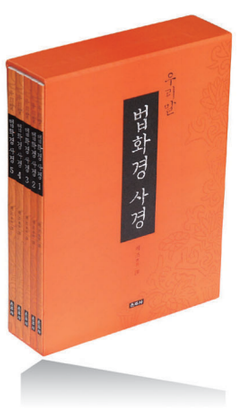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여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칭명염불은 보통사람들을 위한 가장 뛰어나면서도 쉽고 빠른 수행법이다.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님이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어떻게 극락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는가?

혜정 법사 법문 / 정전 · 원왕생 옮김 / 국판 / 248쪽 / 값 10,000원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수승한 법화경 사경!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말 (전5권)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값 40,000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한문 법화경 사경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750쪽 / 값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